

## “신협 이사장 선거, 조합원 화합·축제의 장 돼야”

광주 모 신협 이사장 선출 앞두고 각종 의혹 ‘시끌’

후보 층 “사실과 다르다…공정선거 방해” 하소연

“상호비방·과열경쟁 근절…조합·지역민 이의 우선”

광주지역 한 신협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성이 빚어지고 있다.

후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조합원들

에게 유포되거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5일 신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주 서구

모 신협 이사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

된다.

이번 선거에는 현 이사장 A씨와 상임

이사 B씨 등 총 2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막판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 선출투표를 앞두고 진

흙탕 싸움으로 변질돼 우려를 낳고 있다

는 것이다.

최근 조합원들 사이에서 A씨를 두고

채용 순위 조작을 통한 신규 채용 비위,

경영 손실 등 직무 유기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내용은 지난 2024년 8월 진행된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점수 산정 당시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3명을 대상으

로 인사관리위원회 소속 면접관 5명이 참

여한 면접에서 이사장이 개입했다는 것

이다.

신협중앙회는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감사를 통한 사실 확인 절차에 돌입

함과 동시에 A씨에게 ‘해당 내용이 사실이

라면 중징계 대상이다’고 사전통지했다.

이후 A씨는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한 소

명 절차를 진행, 중징계는 재차 사실 확

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결과상 ‘문제 없

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조합원들에게 억지 논리를 펼치며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을 깎아 내리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조직 적합도와 인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가 ‘타 신협에서 직원간 마찰이 잦았고, 근무에 적응을 못해 수시로 그만 두는 등 우려가 크다. 채용을 재고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의견을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인사규정에 따라 배제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사실을 담은 내용의 메시지를 수시로 조합원들에게 남발하며 공정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협 인사규정 7조에는 ‘전직 중 불미한 행위가 있거나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사위원들도 사실 확인서를 통해 신규 채용 비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또 다른 후보자 B씨를 두고 사적 금전대차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B씨가 지난 2022년 대출 고객과 사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행위인 사적 금전대차 적발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또 B씨는 해당 적발행위 징계 후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대출 업무를 보는 과정에 괴롭힘을 지속해 일부 직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조차 알지 못하며 처음 듣는 얘기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신협 한 조합원은 “서로에 대한 비방보다는 지역민, 조합원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협의 참가치를 드려내는 이사장이 선출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대형마트, 설 선물 본 판매 돌입…가성비 앞세워

내일부터 실속·실용 집중  
맞춤형 프리미엄 상품도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형마트가 실속·실용에 방점을 둔 ‘초가성비’ 세트를 앞세워 설 명절 특수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다.

롯데마트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본 판매에서 롯데마트는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 설 대비 30% 확대하는 동시에 고객 취향을 고려한 프리미엄 및 이색 상품을 선보인다.

고물가로 실속형 상품을 찾는 수요와 더불어 프리미엄 선물을 원하는 수요가 동시에 늘어난 ‘양극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다.

이번 설 과일 선물세트는 전체 물량의 절반을 ‘가성비 세트’로 구성하고, 종류도 지난 설보다 약 2배 늘렸다.

특히 지난 주식 인기를 끌었던 ‘정성답 은 훈합과일’ 세트는 시과, 배, 애플망고 등 국산과 수입과일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는 고객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 5종과 11종에 이어 8종 세트를 추가했다.

수산은 김과 신선한 해산물 세트 중심으로 가성비를 챙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홈플러스는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설날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가공식품과 일상생활 용품도 인기 캐릭터 협업 상품과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 행사를 통해 가격 부담을 줄인다.

축산 선물세트는 10만원 미만의 가성비 상품부터 맞춤형 프리미엄 상품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여기에 이색 상품부터 60만 원대의 프리미엄 선물세트까지 상품 구색

을 다양화했다.

홈플러스도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설날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고객 물가 부담 완화를 목표로 삼고, 선물세트 가격 인하 및 동결에 도 공을 들였으며 6만원 미만 상품 비중

또 전통적인 사과나 배 선물세트에서 벗어나 색다른 과일을 선물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맞춰 홈플러스는 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샤인마스켓·애플망고 세트’와 ‘더 풍성한 과일 종합세트’의 가격을 동결해 본 판매 기간에도 선보인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 광주인자위, 지역 인력·훈련 수급분석

#### 기업 인력수요, ‘사무·돌봄·의료’ 쏠린다

경영지원 사무원·돌봄 서비스·간호사, 상위권 차지

올해 광주지역 기업들의 인력 수요는 일반 사무직과 돌봄·의료 분야에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지원 사무원과 돌봄 서비스 종사자, 간호사가 인력수요 상위권을 차지하며 지역 고용 구조가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휴먼 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광주지역 인력자원개발위원회에 따르면 지역 5인 이상 사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광주지역 인력·훈련 수급분석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지역 전체 인력수요 전망치는 26만429명으로 집계됐다.

인력수요를 직종별로 보면 121개 직종 중 ‘경영지원 사무원’이 8.3% (2만1871명)로 가장 많았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 7.0% (1만8583명), ‘간호사’ 5.8% (1만5349명),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 (1만4848명), ‘제조 단순 종사자’ 4.9% (1만3086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직종 가운데 4개가 서비스·보건 분야로,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중심이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인력 수요 흐름은 직업훈련 수요 전망에서도 수치로 확인됐다. 구직자 를 대상으로 한 양성훈련 수요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17.2%로 가장 높았고, ‘간호사’ 11.1%,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8.1% 순으로 집계됐다. 신규 인력 양성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 등 휴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훈련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향상훈련 수요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가 1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보육교사’ 10.2%, ‘간호사’ 9.2% 등으로 나타났다.

훈련 수급 분석 결과에서는 인력 수요가 높은 직종인수록 공급 부족이 예상됐다. 양성훈련의 경우 ‘간호사(1056명)’가 가장 큰 공급 부족 직종으로 나타났고 향상훈련에서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2124명)’의 부족 규모가 가장 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보고서는 이 같은 수급 미スマ치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우선공급 훈련직종’을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조사 결과는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지역 직업훈련기관에 공유돼 올해 지역 인력양성사업과 훈련과정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송대웅 기자



광고문의 062)370-7070  
구독문의 062)370-7080

## 뉴스는 진실이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보도, 훈들리지 않는 기준  
광남일보를 구독해 주세요

